

아베 코보, 『모래의 여자』(1962)

— 『모래의 여자』, 김난주 역, 민음사, 2001.

남자의 목적은 모래땅에 사는 곤충을 채집하는 것이었다.

물론 모래땅에 사는 곤충은 몸집도 작고 색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웬만한 마니아가 되면 나비나 잠자리쯤은 거들떠보지도 않게 된다. 그들 마니아들이 노리는 것은, 자기의 표본 상자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일도 아니고 분류학적 관심도 아니고 물론 한방 약재를 찾는 것도 아니다. 곤충 채집에는 훨씬 더 소박하고 직접적인 기쁨이 있다. 새로운 종을 발견하는 것 말이다. 신종 하나만 발견하면, 긴 라틴어 학명과 함께 자기 이름도 곤충도감에 기록되어 거의 반영구적으로 보존된다. 비록 곤충이란 형태를 빌려서이기는 하나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다면, 노력한 보람도 있는 셈이다.(15)

바람이 불고 강이 흐르고 바다가 넘실거리는 한, 모래는 토양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어 마치 살아 있는 생물처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어다닐 것이다. 모래는 절대로 쉬지 않는다.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지표를 덮고 멸망시킨다..... 유동하는 모래의 이미지는 그에게 뭐라 말할 수 없는 충격과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모래의 불모성은 흔히 말하듯 건조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끊임없는 흐름으로 인해 어떤 생물도 일체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에 있는 것 같았다. 일 년 내내 매달려 있기만을 강요하는 현실의 답답함에 비하면 이 얼마나 신선한가.

물론 모래는 생존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면 정착은 과연 생존에 절대적으로 불가결한 것인가. 정착을 부득불 고집하기 때문에 저 끔찍스런 경쟁이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만약 정착을 포기하고 모래의 유동에 몸을 맡긴다면 경쟁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사막에도 쫓은 피고 벌레와 짐승도 산다. 강한 적응력을 이용하여 경쟁권 밖으로 벗어난 생물들이다. 예컨대 그의 길앞잡이속처럼.....(19-20)

모래는 절대로 쉬지 않는다. 남자는 몹시 당황스럽다. 작지 싶어서 별 생각 없이 밟은 뱀의 꼬리가 뜻밖에 커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뱀의 머리가 자기 목덜미에 있더라는 식의 당혹감이다.

「그렇지만, 어디 이래서야 오로지 모래를 치우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꼴이잖소!」

「야반도주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남자는 점점 더 갈팡질팡한다. 생활의 속내까지 관계할 생각은 없었다.

「왜 못해!간단하지 않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렇지가 않아요.....」

여자는 부삽질을 하는 동작에 맞추어 숨을 쉬면서 넋지시 말했다.

「부락이 그럭저럭 유지되는 것도,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모래를 퍼내는 덕분이니까요..... 우리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열흘도 못가서 완전히 모래에 묻혀버려서..... 그 다음에는, 뒷집이 똑같은 일을 당하게 돼요」(43)

「저주겠어..... 하지만 배급 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그건 못 참아..... 이렇게 목이 말

라서야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연락을 하라고…… 당신도 목마를 것 아니야」

「일을 시작하면 금방 알려져요…… 항상 누구 한 사람은 망루에서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으니까…… 」

「망루?」

감방에서, 구금되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실감하게 하는 것은 철창도 아니고 벽도 아니고 그 조그만 쪽창이라고 한다. 남자는 허둥거리면서도 재빨리 기억 속을 둘러본다. 수평으로 나뉜 하늘과 모래……. 망루가 파고들 여지 따위 어디에도 없다. 이쪽에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저쪽에서 보일 리가 있겠는가…….

「뒤권의, 벼랑가에서 보면 금방 눈에 띄는데요……」(141)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생각했던 것만큼의 저항감은 느껴지지 않는다. 이 변화의 원인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물 배급이 중단될까 봐 두려워서인가, 아니면 여자에 대한 자책감 때문인가, 아니면 또 노동 자체의 성격 때문일까? 과연 노동에는, 목적지 없이도 여전히 도망쳐 가는 시간을 견디게 하는, 인간의 기댈 언덕 같은 것이 있는 모양이다……중략……<노동을 극복하는 길은 노동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 노동을 극복하는…… 그 자기 부정의 에너지야말로 진정한 노동의 가치입니다.>(153)

그 구멍에서의 생활과 이 풍경을 대립시켜 생각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아름다운 풍경이 인간에게 관대해야 할 필요 따위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결국 모래를 정작의 거부라고 생각한 나의 출발점에 별 틀림은 없었다는 셈이 된다. 1/8mm의 유동…… 상태가 그대로 존재인 세계……. 이 아름다움은 다름 아닌 죽음의 영토에 속하는 것이다. 거대한 파괴력과 폐허의 장엄함으로 통하는 죽음의 아름다움이다.(174-175)

10월…… 어느 날 남자는 까마귀를 잡으려고 뒤권의 공터에다 덫을 놓았다. 그리고 그것을 <희망>이라 이름 짓기로 하였다.

덫은 모래의 성질을 이용한 아주 간단한 것이다. 조금 깊게 판 구멍 속에 나무통을 묻고, 조그만 뚜껑에 세 군데 정도 성냥개비만한 썰기를 박아둔다. 그 각각의 썰기에 가느다란 실이 묶여 있다. 실은 뚜껑 가운데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 밖에 있는 바늘과 연결되어 있다. 바늘 끝에는 미끼인 말린 생선이 꽂혀 있다. 그리고 그 전체는 조심스럽게 모래에 덮여 있어, 겉에서 보기에는 모래 사발 속에 든 미끼만 보이는 구조다. 까마귀가 미끼를 무는 순간 썰기가 벗겨지면서 뚜껑이 떨어지고 동시에 사발에 있는 모래가 좌 흘러내리면서 까마귀를 생매장하는 것이다…….(200-201)

아무 변함 없는 모래와 밤의 몇 주일이 또 지났다.

<희망>도 여전히 까마귀들의 버림을 받은 채다. 하기가 미끼인 말린 생선은 이미 말린 생선이 아니다. 까마귀들은 무시해도 박테리아들은 무시하지 않았다. 어느 아침, 나무 막대기 끝으로 건드려보니 생선은 껍질만 남기고 끈적끈적한 검은 액체로 변해 있었다. 미끼를 갈아끼우는 김에 덫의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한다. 모래를 긁어내고 뚜껑을 열었다. 놀라웠다. 통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던 것이다.(221)

***등장인물**

남자: 니키 준페이. 31세. 신장 158cm. 54Kg. 머리는 다소 벗겨졌고 올백, 포마드는 사용하지 않음. 시력은 우 0.8, 좌 1.0. 피부는 약간 가무잡잡하고 얼굴은 긴 편. 미간이 좁고 코가 낮음. 각진 턱과 왼쪽 귀밑에 점이 있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특징 없음. 혈액형은 AB. 혀가 꼬부라진 듯한 답답한 말투. 내성적이고 고집이 세지만 인간 관계가 딱히 나쁜 편은 아님. 복장은 곤충 채집용 작업복. 위에 첨부한 정면 사진은 두 달 전에 촬영한 것임.(79) 학교 선생님.

여자: 모래 바람에 남편과 딸을 잃은 서른 남짓의 과부.

***주요 사건**

1. 8월의 사흘간 휴가. 모래 마을 도착
2. 20m 깊이의 모래구덩이 속 판잣집의 여자 만남
3. 사다리가 사라짐.
4. 모래 옮기는 여자. 일주일에 한 번 담배와 술 배급.
5. 탈출 시도 1 - 피병
6. 탈출 시도 2 - 여자 포박과 협박
7. 탈출 시도 3 - 부삽으로 판잣집 부쉬 사다리 만들기
8. 탈출 시도 4 - 로프 만들기, 46일만의 지상, 소금밭(늪)
9. 10월. 모래의 모관 현상 발견
10. 3월초. 여자의 임신. 반년 만에 새끼줄 사다리 내려옴.
11. 1955년 8월 18일 이후 7년 이상 행방불명으로 실종 판결.

실종 3부작.

1. 『모래의 여자』(1962), 민음사, 2001.
2. 『타인의 얼굴』(1964), 문예출판사, 2007.
3. 『불타버린 지도』(1967), 문학동네, 2013.